

## 2024-2 국제무역현장실무 TEP 8기 참가 후기

Team Just Do Eat

영어영문학과

202321403

이지연

저는 원래 교직을 꿈꾸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제학부에서 주최한 해외문화체험에 참가한 후, 한상곤 교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통상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후 국제무역실무와 국제무역현장실무를 동시에 수강하기로 결심했으며, 이 선택은 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무역현장실무는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무역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과목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실무에 가까운 과목을 수강한 것만으로도 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타 과목의 단순한 팀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업과의 협력, 팀의 적극성과 진취성, 그리고 교수님의 세심한 지원이 어우러져 완벽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촘촘하게 설계된 단계별 수출 프로세스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머리로는 이해하던 개념들이 실제 경험으로 체득되었고, 국제무역실무와 병행하여 수강했기에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학기 동안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바이어를 발굴하고 컨택하며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은 기존의 어떤 강의와도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유학생 인터뷰와 시식회를 진행하며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인터뷰와 시식회 결과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팀이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다른 팀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어 발굴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20개에서 많게는 30개씩 바이어를 발굴하며 메일을 전송했지만, 초반에는 우리의 메일이 읽히지도 않고 회신이 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팀은 점차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갔고, 메일 내용을 개선하여 바이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반응이 없던 메일들이 점점 읽히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에게 회신이 오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출 견적서와 같은 주요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초기 대응이 다소 미진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무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세로 회신에 임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저는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중요성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이어 발굴 과정에서는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협력하며 메일 내용을 개선하고 바이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이어와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큰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국제통상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제무역현장실무는 단순히 한 학기 동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미래의 진로와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국제통상을 복수 전공하며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과 인턴십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KOTRA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여 국제 무역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값진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수님과 함께했던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